



고불식에서 유나 철우스님이 습의도림 도일스님에게 장군국비를 전달하고 있다.



식당적법 습의를 하고 있는 수계자들.



시미나스님들이 차수를 하고 안행에 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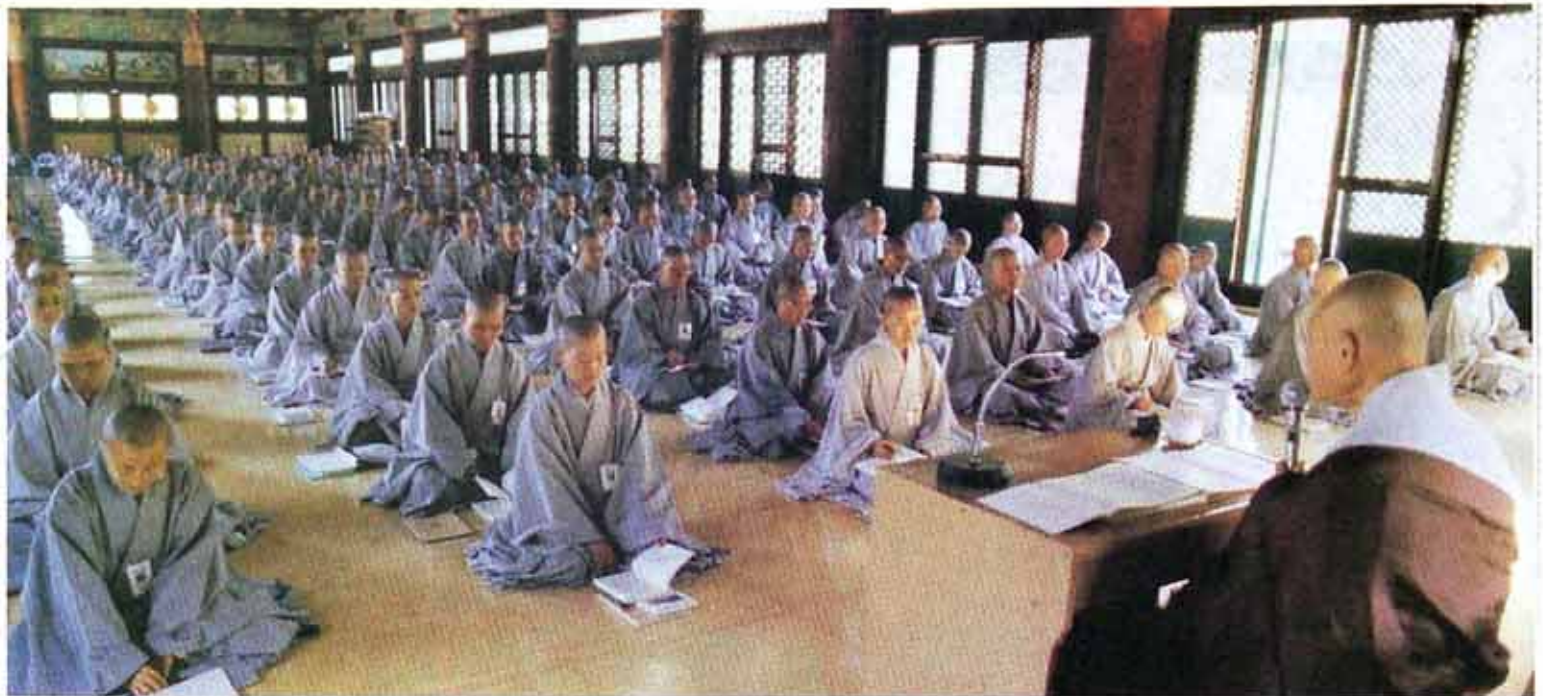
적멸보궁에서 1보1배장진.



구족계 수계식에서 연비의식이 진행되고 있다.(94년 자료사진)



가을단풍 아래 수계를 받고 돌아가는 스님들의 모습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 하다.



부처님의 정법혜명을 이어 생사번뇌를 여의고 한국불교 발전의 거울이 될 것을 서원한 수계자들. 진정한 출가의 출발점에서 울컥은 자새로 647일간 정진한 새 스님 333명은 불교의 흥림과 중생구제에 몸바칠 것을 서원했다.

“정법혜명 잇겠나이다”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
새 스님 333명 탄생



斷擄)이 둘러쳐진 살법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계산림의 일사불란한 일정이 이어졌다.

산림의 첫시간은 식당적법과 습의, 대중이 똑같이 나누어 갖고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고양시키는 공양을 펼치는 바루공양은 법공양 의식과 다르지 않게 엄숙히 진행됐다.

“모든 수행자가 대중속에 모였음이 백강래 시냇물이 큰 바다로 모여들 갈래.” <찬승공덕경>이 독경되는 가운데 진행된 예배·안행시간에는 초심자처럼 잘 들어가는 법(入寺法)에서부터 절에서 생활하는 법(在法)등의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기러기가 줄을 맞춰서 날아가는 것처럼 사뿐히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안행은 일일종대로 차수를 하고 게임 등 마성물을 받지 않도록 일급 자(7) 정도 멀리 내다보며 걷는다. 다음은 가사·장삼 입는 법을 배우는 살습의 시간. 가사·장삼·두루마기 등 법의를 입고 밧는 일도 모두가 도를 닦는 수행의 한 부분이며서 웃고쁨을 내고 주는 손길마저 아름답기 그지없다.

율학(律學)은 불교의 생명인 비구 2백50계 비구녀 3백48계를 수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과목. 좌우스님(파계사·교수사)은 “승단은 계율사상에 흥망이 좌우되므로 큰 지혜를 이루는 힘겨운 계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의본(사미나는 대외도경) 강의는 스님들의 행주좌와(行住坐臥)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을 율장에 근거하여 일러주고 <법망경> 강의는 대승의 위상이 보살로서 지켜야 할 계율을 통해 출가자로서 삼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정신을 살하는 과목. 율학의 엄격함은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분위기에서 뿐만 아니라 기자의 취재마저 불허하는 추상같은 교수사 스

님들에게서도 흥된 느껴졌다. 수계자들은 잠시 휴식시간에도 마음을 가다듬고 적멸보궁에서 1보1배를 하며 오지 부처님만 스승 삼기를 열원했다.

저녁공양은 불식, 몸가짐을 단정히 하기위하여 일렬로 서서 대중울력으로 세면물을 나른뒤 차례대로 발끝에서 얼굴까지 깨끗이 씻고 자리에 앉아 합선에 든다. 조용한 산사에 법고소리가 진잔하게 메아리치면 저녁예불로 이어진다. 예불에 이어 사분계본을 40여분간 독송하면 1시간 40분간 참회정진 시간이다.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오욕심(색·식·욕·수면·명예·재물욕)에서 벗어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올바른 삶에 대한 확신이 붙어간다.

새벽 3시 도량식 목탁소리가 산사의 새벽을 가르며 기침 시간이다. 세면후 법당에 운집한 수계자들은 예불과 90분 백팔합회로 하루를 연다. 속세의 어느 누가 이렇게 경건하고 아름다운 고령의 시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산림에 든 수계제자들의 하루하루는 묵언의 깊은 고요 속에서 정제되는 수행의 서원으로 뚜르익었다.

통도사 일주문 나서는 스님들
무욕결망 멘 어깨엔
불국토 미래가 걸려있다

수계제자들만 엄숙한 것은 아니다. 유나스님을 비롯한 습의도림 습의사스님들도 매일 7시부터 도서관에서 회의를 열어 계율의 지중함을 강조하는 강도높은 수계산림 추진 방향을 재확인한다. 때문에 수계산림은 하루이면서 7일이고 나아가 새스님들의 평생수행의 일정 그 자체로 이어지는 듯 하다.

마지막날 3사 7중스님이 임회한 가운데 분단 비구계 본소 계단 비구녀계 수계식이 엄수됐다. 석가모니불이 영송되는 가운데 연비의식이 진행되고 새스님 333명이 여법하게 탄생했다. 산림의 마지막 의식은 회향식이다. 습의도림스님이 유나스님에게 축비를 전달하면서 수계산림은 정법혜명 회향했다. 새 스님들의 가슴마다 일대사 인연을 깨닫고자 서원하는 죽비소리만 울리고 있을 것임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계산림을 증명할 큰 스님들의 눈길에도 새스님들의 울컥은 수행여정을 믿는 마음이 여실히 배어 있었다. 그래서 서일까, 회향식을 마치고 회고무신에 결망을 맺고 삼삼오오 일주문을 나서는 스님들의 어깨위에 짙은 가을산빛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글=김원우·사진=고영배 기자

“목숨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다” 서원
영축산 단풍보다 더 붉다

“계는 본래 악을 그치고 세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정은 이치를 거두어 육천에서 초월케 한다. 계는 진실로 자기마음에 두어야 한다.” 중경 율가 스님의 고불식 법어를 들으며 지극히 깨우는 수계제자의 아랫입술마다 영축산 자락의 단풍보다 더 짙은 서원의 빛이 서려 있다. 그 고요 속에서 유나인 철우스님이 습의도림 도일스님에게 축비를 전달했다. 3백33명의 수계제자들이 장엄장엄한 가운데 647일의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은 이렇게 일제했다.

입제식이 거행되는 살법전안은 나뭇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와 엄숙 그 자체였다. 수계제자들과 앞쪽에 거룩한 위의를 최정한 3사7중 큰 스님들의 근엄이 어찌면 오늘날의 한국불교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모습일 것 같다. 3사7중스님은 수계식을 증명해 주는 비구 율사스님이다. 3사는 전계대화상 갈마아사리 교수사(사미)이며 7중은 7명의 존중아사리로 구성된다. 전계대화상은 계를 설명하고 전해주는 스님이고 갈마아사리는 갈마(가르침)법을 시행하고 계법을 자각이 있는가 설명해주는 스님이며 교수사(사미)는 불법 대의를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스승. 7중사는 존중아사리로 수계를 증명해주고 보증해주는 스님을 일컫는다.

수계제자들이 어느새 사사로운 출입을 금하는 금단방(禁

취재수첩

“강원현실 고려 수계자격 보완해야”

구족계란 6개월간의 행자과정과 3주간의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사미(나)가 선인 4인거 성만, 4년과정의 중안인가 교육과정수료 후 제4급 승가고사를 거친다음 비구(나) 법계를 흡수 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18회 구족계 수계산림(授戒山林)은 새로 적용되는 교육·외계법 시행을 앞두고 사미 2백13명, 사미니 1백77명 등 총 3백90명이 접수하여 가장많은 접수현황을 보였다. 그런만큼 탈락자도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탈락자가 많은 것은 갈마(가르침)경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수계지원자들이 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지원한 것은 물론 근본적인

규정의 애매모호한 때문이다. 동안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종단인가 강원을 졸업했다 해도 사고과판 설치된 강원이 대부분이어서 탈락자들의 반발이 컸다. 이미 출가해 수행도중에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는데도 계를 받을 수 없나? 라고 거듭 묻던 한 사미의 표정은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반면 이례에 전과가 있는 것은 고려가 안돼 대조적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규정 이 제대로 하달이 안돼 발생했다는 설명이지만 역시 쉽게 납득되지는 않았다.

산림을 총괄하는 총무원 총무국장 지현스님은 “과거 총무원 교무부가 주관하다 작년부터 총무부로부터 이점됐

다. 율학의 미비했던 점을 거울 삼아 내년부터는 더욱 원만하게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계산림의 한 관계자도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교육원이 사찰의 강원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구족계 수계기준을 확정해서 문제가 노출됐다.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어느때보다 엄격하게 실시된 이번 수계산림에서는 중간 퇴락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규정을 잘 준수했다. 특히 유나스님을 비롯한 임원스님들과 습의사스님들의 계율중심의 강도 높은 수계산림 운영도 새로운 모범으로 평가됐다.